

싸베빌라



미얀마 양곤팀 보고서

2016.6월호

샤베빌라

HOT ISSUE

6월은~?

허성주,
양곤에서 쌍수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350PPM

출산장려아가특집

참, 길었다
마지막 기타교실

싸삐빌라

CONTENTS

6월 일정

활동보고

우리들의 이모저모

개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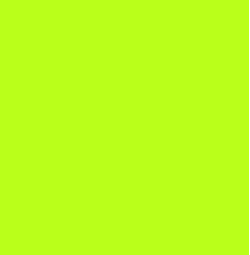
싸삐빌라[미얀마어: 밥먹었어?]

라운아띠 15기 미얀마, 양곤팀: 허성주 이난희 박은정 송진우

N0.263, Mahabandoola Street, Botataung Township,
Botataung P.O. 11161, Yangon, Myanmar.

6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빨레	3 양곤	4 350PP M with Atti Club
5 세계 환 경의 날	6 172th World YMCA B-day	7 쉴	8 흘랑 파야 날서리	9 쉐베 파	10 Y 모우빈 Maubin	11 ATTI CLUB
12 에 생일 파티	13 게스트하우스	14 마오프 라바	15 파야 날서리	16 초등학 교	17 날서리	18
19 기쁨언니 만남:)	20	21	22	23 KB 한국어 학당	24	25
26 쉴	27 일일스텝	28 날서리	29	30		



활 동 보 고

환경의 달 '350PPM'
X아띠 클럽

넬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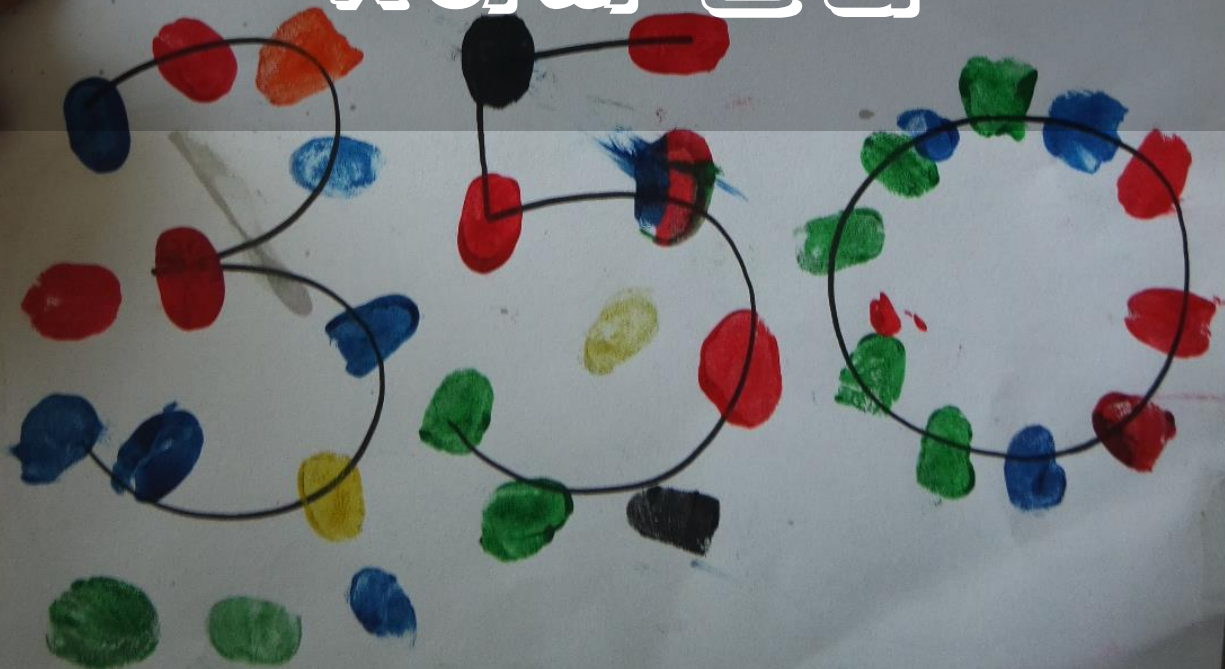
KB 한국어학당



'350PPM'

X아띠 클럽

*b KB Kookmin Bank YMCA RaonAni



*b KB Kookmin Bank YMCA RaonAni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을 맞아,
세계적인 350PPM캠페인,
더욱이
라운아피 350PPM 캠페인을
미얀마 양곤에서 실천했다.

우리의 양곤청년친구들,
든든한 ATTI CLUB과 함께.

D-day 일주일전 작전모의 (발단)

아띠클럽과 미얀마의 환경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중, 푸푸언니로부터 "미얀마학교에는 따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 나라에서도 예전에 몇번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나또한 Y내에서 느낀 바로는 한 층을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모든것을 종합한 결과, 우리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환경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자' 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쓰레기'와 '무분별한 나무 벌목'을 집중해서 다루기로 했다.



수많은 언성(?)이 오가며 완성된 작전내용.
(캠페인 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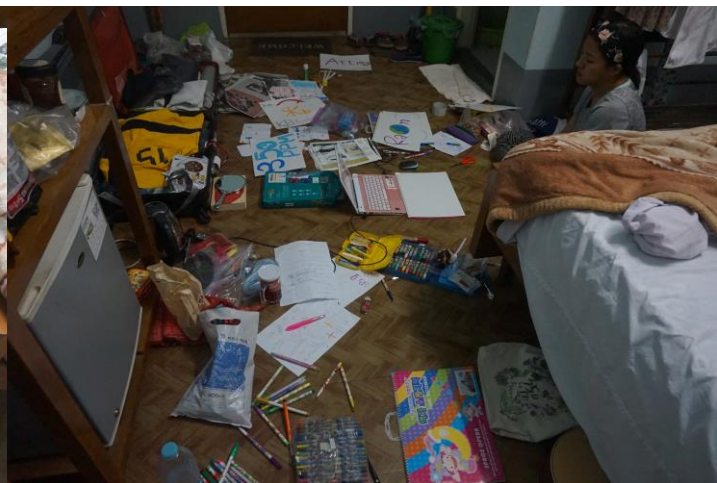
step1. 슬레파고다 근처 마하반둘라 공원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이산화 탄소와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영향을 설명.

step2.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고 실천 약속을 스스로 정한 뒤, 손도장 찍기, 선물로 부채 배부

step3. 활동내용을 찍어서 뮤직비디오 제작. 페이스북에 올리기.



D-day 하루 전 .. 우리의 모습들 (언니.. 정신차려)



D-day (전개)

6월3일 토요일 오후1시. 우리 넷은 아띠 클럽 친구들과 모여 미리 준비한 스케치북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의논했다. 우리 먼저 실천약속도 적고, 손도장을 찍은 후 피켓을 목에 건채 설레는 마음으로 마하반둘라 공원에 딱 도착했는데....



자리를 잡자마자 공원을 관리하시는 굼은 얼굴의 YCDC(정부기관)아저씨를 마주 할 수 있었다. 사실 미얀마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려면 사전에 시청이나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었어야 했다. 특히나 마하반둘라 공원은 바로 맞은편에 시청이 마주하고 있어서 더더욱 철저했다.

우리는 미리 산드라 간사님께 이야기를 했고 간사님께서 permission을 받겠다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런데 **뚜뚜언니**의 기지로 공원 내의 YCDC사무실을 가서 그곳의 높은 분(?)께 캠페인의 취지를 잘 이야기 했고,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스케치북의 내용을 다 설명했다. 언니의 화려한 말솜씨는 그분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그제서야 우리는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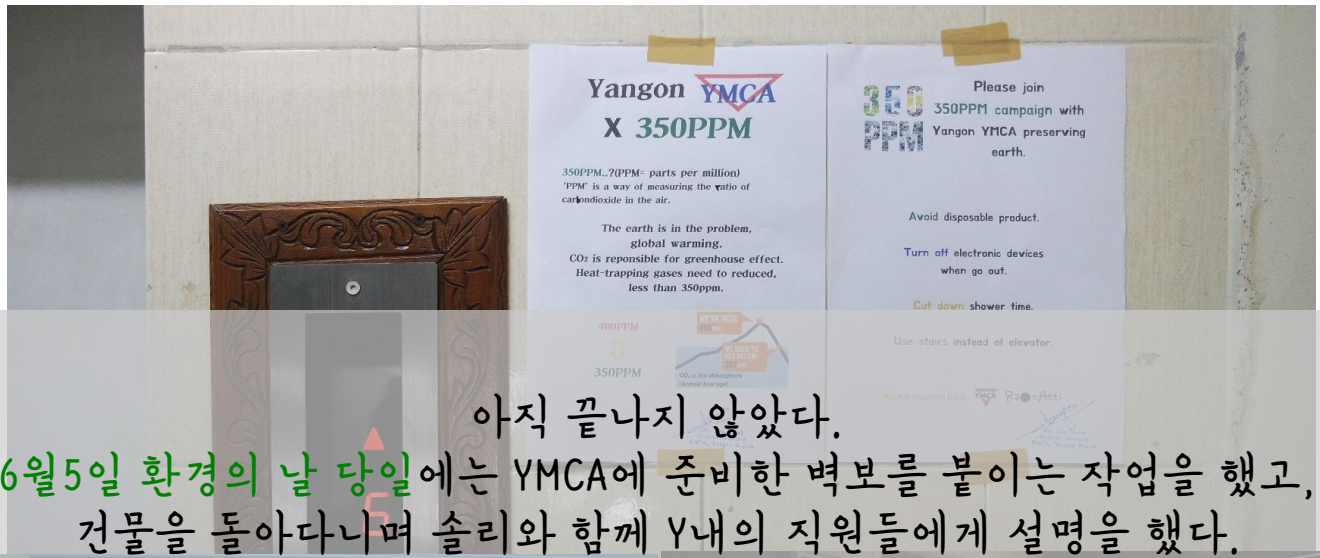


우리는 미얀마말을 능통하게 할 수 없어서 옆에서 스케치북을 들어주고 손도장을 찍는 것, 사진담당을 했고, 아띠친구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용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활약상에 혀를 내둘렀다. 원래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멋있었고,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80여개가 넘는 손도장을 찍었고,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아줌마, 아저씨, 대학생, 남녀노소 외국인을 포함, 너무도 무서웠던 경찰아저씨들 것도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5일 환경의 날 당일에는 YMCA에 준비한 벽보를 붙이는 작업을 했고, 건물을 돌아다니며 솔리와 함께 Y내의 직원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 마지막은 우파냐 총장님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한 2분정도 설명하는데 미리 오시기로 한 손님들이 오셨다. 총장님은 이분들이 진짜 같이 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요청하셨고, 나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내며 했다.(심장이 두근대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들중에는 정부관계자도 계셨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옆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잘 전했던 것 같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에 걸렸던 것은 미얀마에 쓰레기 수거통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빈민촌인 쉘베파에는 YCDC통이 아예 없어서 사람들은 집 주위에 버리거나 혹은 사찰에 버려 그곳에서 태우는데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흘랑파야와 쉘베파에 YCDC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무분별한 벌목을 막아주세요"란 말을 전했다.

총장님께서 Y뿐만 아니고 주변 상가에도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근처의 환전소, 서점, National YMCA, 파나소닉에 가서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바로는
미얀마의 이산화탄소 수치는
중국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나라 면적은 다섯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하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긴 했다.

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자라는 마음을 먹었다.
콘센트의 플러그를 잘 뽑고, 텀블러를 잘 사용하는 것도!!



แคมเปญนี้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멋진 활약상을 보여준 아띠 친구들과, 그리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또한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은 하늘(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아닐까 싶지만.. 요즘 양곤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운이 따라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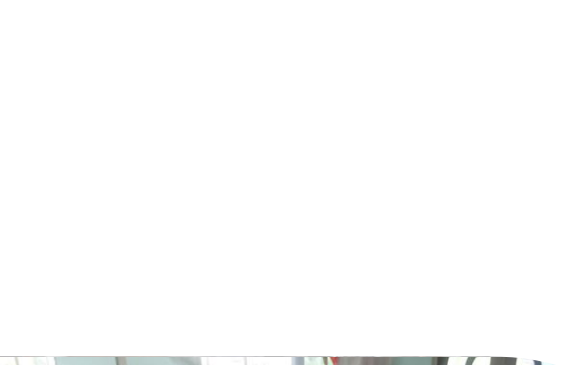
널 서 리



중간평가 이 후,
우리 널서리활동에 불어온 작은 변화의 바람 ♥

중심 메시지 혹은 주제를 설정하자
우리가 정한 주제는 바로,
'협동심'

수업방식에 대해 선생님들과 소통하자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해주고 오는 수업이 아닌,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피드백을 받아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6월은 환경의 날(feat.350PPM)

지난 달, 귀여움끝판왕이었던 꼬깔모자 외에도,
'날짜 지난 신문지'는 아주 유용했다!
(15기들을 널서리에서 따라해도 아주 좋아요)

우리는 아이들과, 손으로 신문지를 길다랗게 잘게 찢고,
만지면서 촉감놀이를 하고





동시에
다 찢은 신문지(쓰레기)를 스스로 봉지에 담는 연습,
마지막으로 그 봉지로 공을 만들어 수업하면서
재활용까지.

우리가 수업에 담은 내용까지 아이들이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호호



#협동심

평균 4세반인 우리들의 널서리 수업에서
어떻게 협동심을 전달하나 생각하니, 활동적이면서도
팀이나 짝을 이루어하는 체육놀이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되었다.
2인3각, 짝지어 풍선웁기기, 색깔카드 뒤집기 등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흥미유도도 되어야하고,
설명도 길어져서는 안된다.
알기쉽게 직접 보여주고 행동으로 설명하고.





놀이를 위주로 한 체육수업을 할 때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활기가 너무나 넘치고 신이 나서
우리가 감당이 안되거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정신없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대수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데 :)

한 달 남은 지금은 그저 멈추지않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다.





KB 한국어학당



6월 23일 양곤, KB한국어학당에서.

행사는 다소 뻘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한국 문화 체험이란 말에 딱 적합한
김밥 만들기와 윷놀이가 고작이었으니.
마흔 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즐기기에
뭔가 부족했고 차려놓은 밥상은 조출해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 밖.
그렇게나 많은 웃음과 열정이 그들 속에 숨어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김밥을 만드는 척 하며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하나 둘 씹 집어먹
은 김밥은 전투 윷놀이를 준비하기 위한 위밍업으로 충분했다. 윷놀이 규칙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승부욕으로 무장했다. 미얀마
사람들 특유의 수줍음과 낮가림은 찾을 수 없었다. 앞서간 상대방의 말
(馬)을 잡을 때마다 건물이 떠나갈 만큼의 소리가 터졌고, 말(馬)을 얻어
두 개가 함께 이동하는 말(馬)이 상대방 말(馬)에게 쫓길 때면 그들은
뭔가 대단한 추격전은 보는 것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근래 들어서는 잘 하지 않는 윷놀이 아닌가.
어느새 고스톱에게 자리를 내준 채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버린 세태고.
그런데 이곳, 미얀마에서만큼은 달랐다.
귀도 없는 말(馬)에게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대는, 마치 윷에 신이라도
깃든양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 모아 윷을 던지는 그들의 순박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루에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세 네 시간 정도를 함께 보낸 게 전부인데도 BBB 한국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인상은 꽤나 깊게 남았다. 아띠 클럽을 비롯해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청년들을 몇몇 만나곤 하는데, 가끔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국인인 나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았고.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면 BBB 한국어학당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BBB 측에서도 우리 양곤 라온아띠와 같은 교류 및 소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왔고. 그러니 앞으로의 활동은 16기에서 멋지게 해주길 기대한다.





우리들의 이모저모

난희와 은정이가 미얀마에서 만났었던, 아가특집



아가아가해 ♡ ♡ ♡



내 생애 가장 많이 아가를 안아본 시간, 라온아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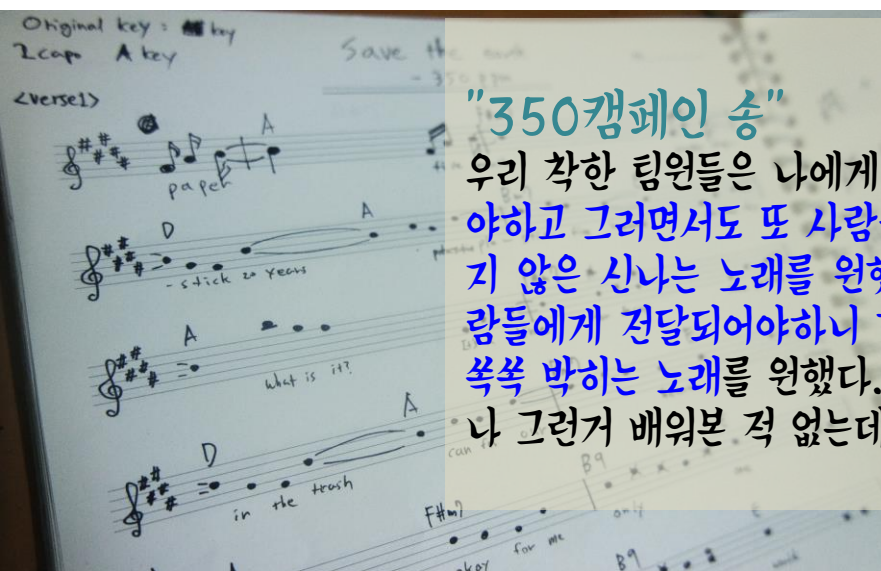
350PPM, 비하인드 스토리

딱딱딱! 먼저 캠페인 활동과 뮤직비디오 촬영에 함께해준 우리 팀원들과 아띠클럽 친구들,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정말 성공적인 캠페인이었고 덤으로 미얀마 신문에까지 실렸던!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됐다.

잠시 기억을 거슬러 3월 초로 돌아가 본다.

어찌다보니 미얀마에 기타를 가져오게 됐고, 어찌다보니 350ppm 캠페인 얘기가 나왔고, 어찌다보니 기타도 있겠다 캠페인 뮤직비디오를 찍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어찌다보니 노래도 직접 만들어 뮤비를 찍자는 얘기까지. 너무도 물 흐르듯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이야기처럼 물 흐르듯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7월 5일, 바로 어제 모든 것이 완성되기까지, 지난 4달은 나에게 결코 순탄치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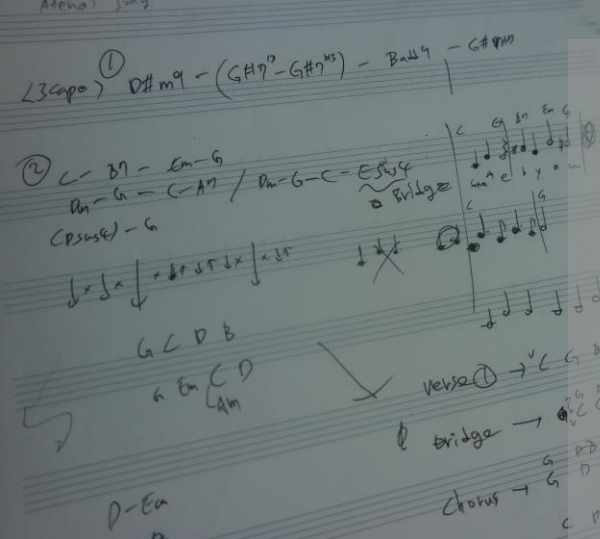


"350캠페인 송"

우리 착한 팀원들은 나에게 캠페인 노래인 만큼 진지함이 있어야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게 너무 무겁지 않은 신나는 노래를 원했다. 흔하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하니 한번 들으면 흥얼거릴 수 있게 귀에 쏙쏙 박히는 노래를 원했다. '명곡'을 원했다. 나 그런거 배워본 적 없는데, 나 공대생인데.

첫 캠페인송 후보작은 3월 달에 약간의 틀을 갖추었지만 너무 진부한 느낌이 강해서 그냥 버려버렸다. 두 번째 후보작은 아마 5월 초 베이네빈에서 마을살이를 할 때였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노래에서도 쓰이는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보았는데, 이번엔 또 너무 쉬운 멜로디인 것 같고 캠페인송으로 쓰기에 뭔가 느낌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갈아엎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노래는 5월 중순 방콕 비자트립이 끝나고 미얀마에 돌아오기 전, 방콕 공항에서 면세점 아이쇼핑을 하던 중에 우연히 흥얼거리다 떠올랐다. 원래 캠페인송에 쓰려했던 멜로디가 아니었고 다른 잔잔한 분위기로 따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노래였는데, 내가 가진 또 다른 몇 개의 후보 중에 그나마 이게 350ppm송에 어울릴 것 같았고, 결국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더 밝고 쉬운 멜로디와 코드의 곡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세 번 만에 드디어 완성!은 무슨 끝이 아니라 이제
는 실제 노래에 쓰일 MR을 만들어야 했다.... 지금
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캠페인송은 어쿠스틱 노래
가 아니기에 기타 한 대만으로 곡 전체를 이끌어
가기에 지루함이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악기를 뭘
쓸 수 있을까, 멜로디언과 실로폰을 같이 넣어볼까,
아니면 리코더를 어디서 구해볼까
고민하던 나에게 YMCA 올드빌딩 1층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녹음을 위한 방음실 비슷한 것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녹음 파일이어도 지나가는 사람
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한번이면 휴지통 직행인 슬픈 현실이었기에
(미얀마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3분에 한 번씩 경적을 누르고 거리에 무수한 차들이),
바깥세상이 조용해질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기와 함께
내 녹음작업은 시작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기타와 피아노 따로 녹음을 해야 했기에 기준이 되어줄 박자가
필요했지만 그런 편리한 작곡 프로그램은 당연히 없었고, 박자 파일도 따로 만들어야
했다. 한번에 2~30개씩 녹음을 하고 노트북으로 옮겨 기타와 피아노 박자가 서로
잘 맞는지, 반에 반 박자라도 엇나갔으면 또다시 휴지통행. 그렇게 몇 주에 걸친
237번의 반복 녹음 끝에 MR에 쓰일 녹음 파일을 만들 수 있었다.
파견기간동안은 자발적 불편함을 느껴보자는 라온아띠의 취지에 걸맞게 수작업이라
는 불편함을 질리도록 체험해 보았던 것 같다.

3달 반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캠페인송 MR을 완성했다!!!

친구들과 녹음만 하면 노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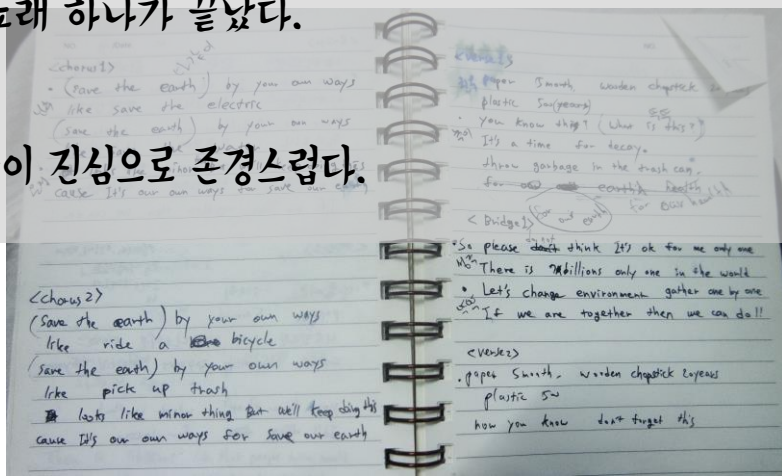
이제 뮤직비디오의 노래와 영상 중에 노래 하나가 끝났다.

다시 뮤비에 쓸 영상을 처음부터....

노래든 영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허성주작곡가님의 작사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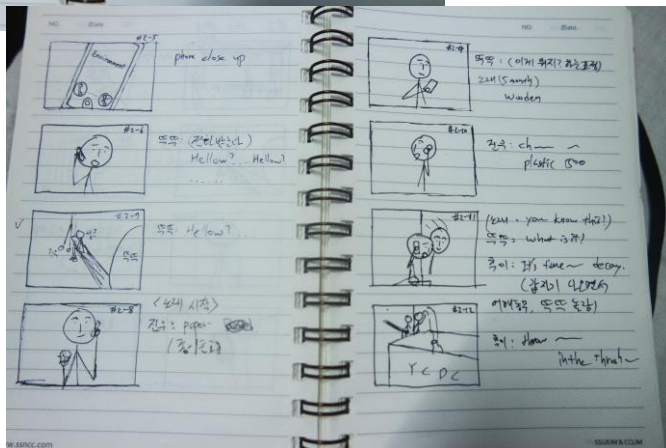
"캠페인 송'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

산 넘어 산이다.

노래가 끝나니 이제 노래만큼 또 중요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다. 캠페인 뮤직비디오라 하니 뭔가 가사와 연관이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활동 영상처럼 기존에 있는 영상들로 편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어떤 영상을 찍을지 미리 계획하고 찍어야 한다는 게 또 어려웠다.

뮤비영상은 아띠클럽 친구들과 함께 찍어야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밖에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라 하루 만에 노래 녹음도 하고 모든 영상도 다 찍어야 했다. 고작 오후 3시에 만나 해가 지기 전까지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6월25일은 힘들다는 생각할 틈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쁜 하루였다.(그래서 뮤비 후렴부분은 그냥 막춤으로)

몇 일전부터 계속 새벽까지 작업했고 소진 직전이었지만 내가 친구들에게 뮤직비디오 찍자고 했던 터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힘든 티 하나 낼 수도 없었다.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찍다보니 카메라 설정이 잘못돼 있는 것도 모르고 모든 영상을 찍어버렸고,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하루 종일 힘들게 찍은 영상들이 잘못된 설정으로 하나같이 너무 밝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감독님의
뮤비 콘티를
슬쩍봐볼까요?



그제서야 참아왔던 게 터져버렸다. 바로 의욕상실. 소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판걸 하고 있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등등. 나중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118개의 영상들과 1주일간의 밤샘 편집, 후보정 과정을 통해 어찌저찌 만들긴 했지만, 슬프게도 이런 4개월 노력의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단 하루의 실수로 그래 돼버렸단 게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쓰리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 줄때면 쓰렸던 마음이 전부 사라진다. 가끔 방에서 진우가 혼자 PPM송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땐ㅋㅋㅋ 내가 만든 노래를 누군가가 흥얼거린다니. 별거 아닌데 진심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고맙다 진우야.

주제는 ‘350ppm 뮤비’ 하나이지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니 글이 길어진 것 같다. 그간 속에 쌓여왔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기분일랄까. 보고서에 들어갈 글이라기엔 너무 개인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영상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 생색이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한국에서가 아닌, 미얀마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곡을 쓰고 뮤비를 만든 나의 그 모든 과정에 박수를 보낸다!
진짜 고생 많았다 오예 짹짹!



허성주, 쌍수(쌍커피 수술)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다래끼.
정확히는 '겉' 다래끼. 350ppm 류비 덕분에 너무 오랜 시간
컴퓨터와 마주앉아 있었던게 그 원인이었을까.

6월15일, 오른쪽 눈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즈음
뭘 잘 못 먹어 입주위에 두드러기가 났었고 그래서 눈이 간질간질
하나보다 싫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게 내 실수였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놈은 급격하게 커졌고 18일이 되는 날 절정기에
이르렀다. 다래끼 몇 번 나봤지만 이렇게 크게 난적은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이놈처럼 큰거는 보질 못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것을 짚아할 것 같아 월요일이 되는 20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근데 이런, 1시에 도착했는데 의사선생님이 5시에 오신단다. 병원
에 앉아 4시간가량 멍하니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진찰시간. 4시간을 기다린 내 인내심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진찰은
4분 만에 끝났다.

"지금은 환자분 눈이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으니,
약 먹고 2일 뒤에 다시 오세요"

뭐? 의사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빨리 이것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열심히 약 먹고 휴식을 취하며
22일 다시 방문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커서 건드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2일 뒤에 다시 오세요"

네, 선생님. 다른 사람 말은 죽어라 안 들어도 의사 선생님 말씀은
또 내가 잘 듣지. 그리고 2일 뒤 24일.

"음,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그때 보고 결정 할게요"

암인가. 내 직감은 암을 외치고 있었다. 그 '암 걸리겠다'가
아니라 진짜 암. 왜 뭘데 그때 가서 결정해? 그제서야 이놈이
보통 다래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다래끼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래도 컸던가. 그렇게 알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주말을 보냈고, 27일이 되었다.
진찰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뭐라 말을 하더니 나보고
긴장이라도 하라는듯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분명 나를 그냥 집에 보내진 않을 것이야. 무슨 일이
날것이야. 그래도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던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야해. 절대 조금이라도 위축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어느 순간 나는 주사실 같은 작은 방에 누워있었다.
방에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구급상자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내 눈 커플 위로 들어오는 마취주사. 아 끝났다 이제.
마취됐으니깐 아프지도 않을꺼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거야. 잠시 나와 눈을 마주치며 의사선생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도구.
그리고 시작.

'응? 마취가 덜됐나? 생각보다 통증이 조금 있네? 뭐 이정도면 참을수있지ㅋㅋ헛ㅎ? 아직 마취가 안된 것 같아요 선생님, 응?? 유통간 지난 마취제 쓰느거아냐?!?'

아마도 내가 걸렸던 건 압이 맞는 것 같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난 압에 걸렸었다. 다래끼라는 단어로는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덕분에 나는 병원가느라 1주일, 깨고나서 1주일, 총 2주일동안 활동지도 안가고 아무것도 안하고 혼자 방에서 가만히 있었다. 원치 않았던 휴가 아닌 휴가였다.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문 지금, 이 압 덩어리는 끝까지 자신을 잊지 말라는 듯 오른쪽 눈에 작은 흉터와 함께 쌍꺼풀을 선물해주고 내 곁을 떠나갔다. 그래서 한동안은 상당히 울적했다. 쌍꺼풀 있는 남자 눈을 별로 안 좋아했고, 그게 없는 내 눈에 나름 만족하며 살아왔던 나였는데. 26년간 항상 똑같았던 내 얼굴에 변화를 준 큰 계기가 되었다. 별 수 있나. 이미 생겨버렸고 이제는 나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는데.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하랴.**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역시나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라온아띠가 되었고, 미얀마에 오게 됐고, 이곳에서 다래끼가 생겨 얼굴에까지 변화가 생기다니. 만약 라온아띠가 안됐었더라면, 7월 지금의 내 얼굴엔 쌍꺼풀이 없었겠지? 어찌될지 모르는 게 사람일이라 인생이 더 재밌는 것 같다. 하하하. 그래도 다래끼는 이제 그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기타교실4



누구를 위한 기타교실인가

“‘꽃 그대’ 따주고 그 다음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해줘”
“내일까지 ‘Nostalgia’ 할꺼고 ‘I’m in love’도 끝부분 따주고
‘긴긴밤’ 이랑 ‘좋아해’, ‘묘해 너와’, ‘아마도 그건’도 할꺼니깐
준비해둬. 알겠지? 무조건 원곡이랑 똑같이”
점점 학생들이 내주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다.
아니, 내가 학생이 된 것 같다.
누구를 위한 기타 교실인가.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 Zion.T ‘꺼내 먹어요’ 중

나를 말만하면 저절로 악보를 만들어주는 자판기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습득속도가 빨라지는건 좋은 현상이지만 그럴수록 학생들의 요구사항
또한 늘어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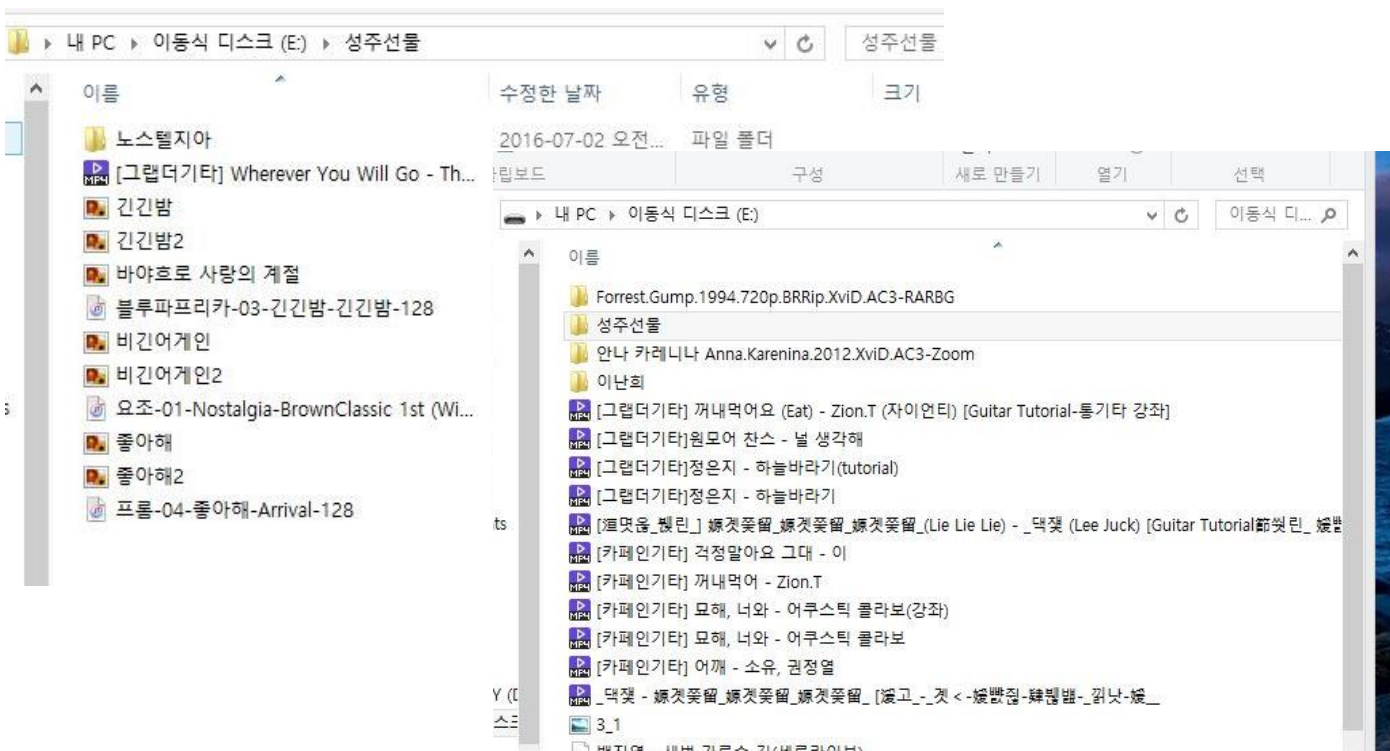
자랄수록 더 많은 먹이를 달라고 짹짹대는
둥지속의 귀여운 아기 새들 같다랄까.

이런 새 새끼들.

때론 학생들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기타강좌 영상이나 코드를 준비해
줄때도 있다(원곡에 비슷하게 그걸 또 다시 바꿔야하지만).

하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강좌영상이나 악보, 코드가 전혀 없는 노래라
던가, 기타 2대로 친 원곡을 혼자서 칠 수 있게 편곡해서 만들어 달라
할 때, 후.

이번 달에도 내 기타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적이 많진 않았지만 학생
들이 내준 과제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성주선물'이래서 열어보니... ㅋ

은정

기타코드 이해력이 좋아지고 있다.
한 곡 전체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다.
금방금방 따라한다.
습득속도가 빠르다.
연습량이 더 많아졌다.



*기타 치며 노래도 같이 부르기엔 아직은 무리

-기타와 노래를 같이 못하는 이유는 '왼손으로 다음에 무슨 코드를 잡아야하지?' '오른손으로는 무슨 줄을 튕겨야하지?' '노래는 어떤 박자에 들어 가야하지?' 등등 동시에 실시간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하다보니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버벅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 처음부터 기타랑 노래를 같이 연습하기보단, 먼저 기타를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마치 노래방에서 기계반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몸에 밸 때까지 연습한다면, 기타에 맞춰 노래 부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지만 아직 장인은 아니기에. 본인이 가진 기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연습에 어려움.

-기타문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꺼 알고 샀던 거잖아.

*의욕 조금 부족

-한국 가서 기타 놓게 될까봐 걱정이다. 해단식 때 만나면 안 까먹었나 확인한다 내가



난희

따라올 자가 없 '의욕'.
의욕은 여전히 최고.
알려주는 연주법을 보고
따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주할 때 잘못된 습관.

-검지손가락 꼭 써야한다. 처음에 습관 잘못들이면 나중에 크게 잘못된다. 핑거스타일로 할 때 손가락 한 개로 치지 말고 5개의 손가락 모두 사용해야한다. 그거 정말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

*verse, chorus 등 부분 부분은 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레 이어서 하기엔 조금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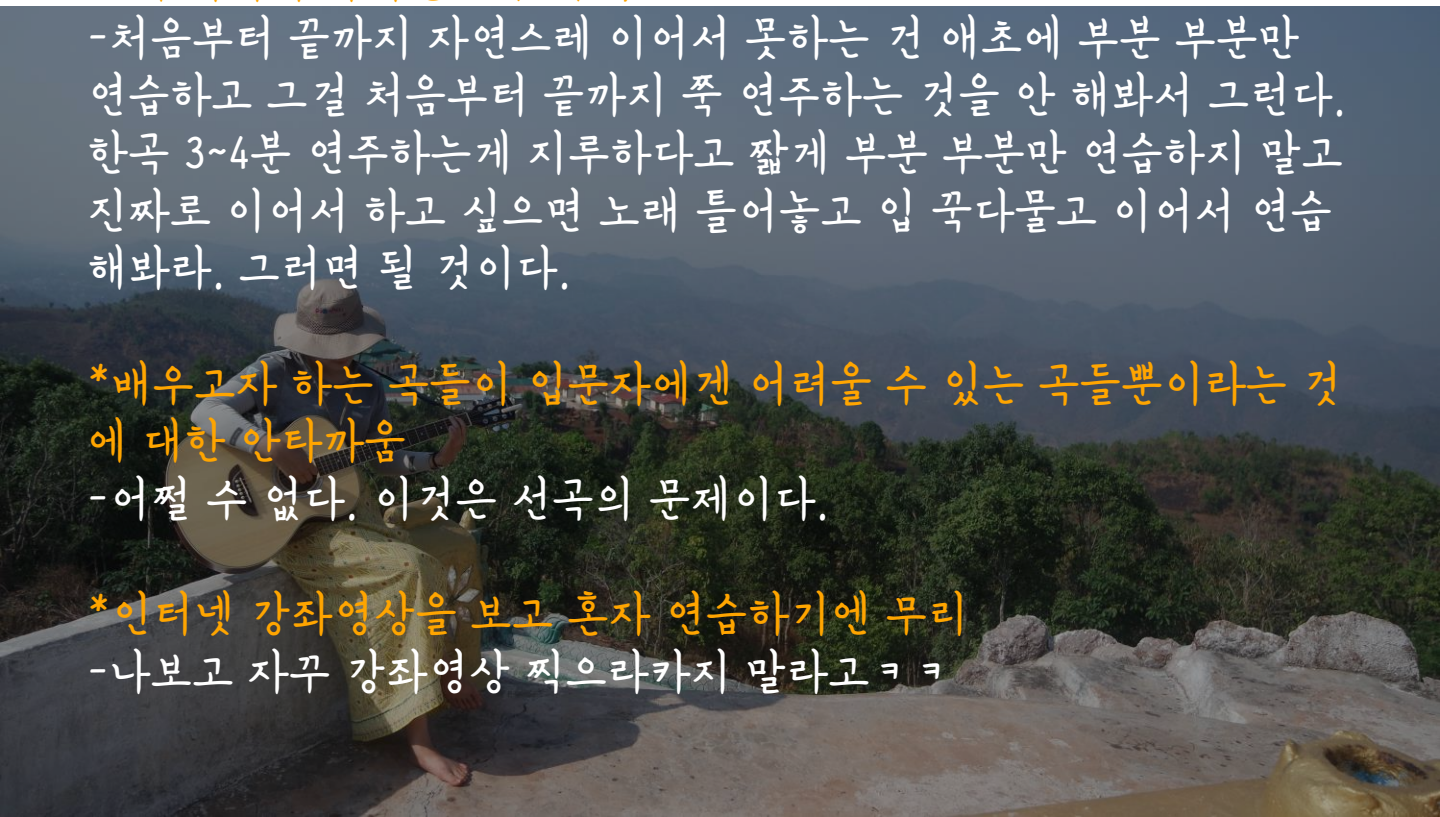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레 이어서 못하는 건 애초에 부분 부분만 연습하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쪽 연주하는 것을 안 해봐서 그런다. 한국 3~4분 연주하는게 지루하다고 짧게 부분 부분만 연습하지 말고 진짜로 이어서 하고 싶으면 노래 틀어놓고 입 꼭다물고 이어서 연습해봐라. 그러면 될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곡들이 입문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곡들뿐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선곡의 문제이다.

*인터넷 강좌영상을 보고 혼자 연습하기엔 무리

-나보고 자꾸 강좌영상 찍으라카지 말라고 ㅋㅋ



진우

혼자 꾸준히 잘 연습한다.
진도도 빠르고.
내가 알려준 것도 없고
혼자 잘해서 딱히 쓸 말이 없다.



*코드를 잘못 잡는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가 부족.

잘못된 상태로 꾸준히 연습

-이건 내가 옆에 있을 때 잘못될 걸 알려줄 순 있지만.

내가 없어도 혼자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잘 하고 있는 것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계속 방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 기타교실인 만큼 앞으로의 지속가능을 위해 칭찬보다 고쳐야 할 점 위주로 썼다.

나도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다들 처음 3월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 정말 많이 발전했다.

진심으로. 코드 하나 못 잡던 애들이었는데. 대견하다.

'라운아피가 파견 가는 이유는 그 사이트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을 순간을 위해서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내가 없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집에서도 계속 혼자 연습할 수 있게 미얀마에서의 남은 20일 동안 지금까지 배운 곡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겠다.

원래 처음 목표는 귀국 보고회 때
다 같이 기타로 공연을 하는 것이었지만.
선생의 능력부족 때문일까. 모르겠다.

개인 에세이

요즈음은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6월 초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다할 걱정, 고민같은거,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웃을 순간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고, 밥 먹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런 순간순간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근 한달간을 다시 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에 관해 고민으로 새벽 3,4가 되어야 잠이 들곤 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또다시 나는 플랜을 짜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라온아띠 이후의 날들을 고민한다.

내가 성격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ㅎㅎ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다. 겁나서 못해봤을 뿐 인간관계든, 또 다른 시작이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든, 실패할까 두려워서 혹은 세상 돌아가는 사이클에 맞추기 위해서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금 무서워는 하겠지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 일 수 없었다.

내 인생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그들의 영향이 내 생각보다 더 컸던 적도 많았다.

그들과도 엮이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러도 내꺼는 내꺼다, 각자 하나씩 다 부여 받은거고, 그들이 내 삶에 나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삶에 그 자신보다 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가면 휘둘릴 때도 많을 거고, 내가 좋아서 바쁜 것이 아닌 바쁘기 위해서 바빠야 하는 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잡을 것이다.

나는 라온아띠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삶의 이치를 깨닫고, 갑자기 득도하는 것을 바랬다. 우주같은 모간자님은 내 나이에 벌써 깨달으면 본인은 억울해서 못 살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될 모습을 원했다. 어른 같은 모습, 진중한 모습을 기대했다.

여전히 어린애처럼 살지만, 열망의 남정네들은 내가 광패가 아니냐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어린애처럼 살아도 될 것 같다. 가끔은 때도 막 쓰면서. 맘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난희

내 삶은 항상 이러지 않았나?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행복도 있고,
좌절이 있으면 도전도 있고,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라면 사랑이 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모든 긍정적인 것들도 있다, 분명히.
난 '부정'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거나 마주하는것도
아직 매번 너무 힘들고, 그 때마다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그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긍정'에 더 힘을 싣고 싶다.

6월의 일기 중에서

박은정

는 뜨자마자 짜증난다. 아침메뉴도 맘에 들지않고, 왠지 몸도더 피곤하고 무겁다. 버스도 너무 열악하고, 냄새도 막 싫고, 짜증만 솟구친다. 나 힘든가?

그 날이 그랬다.

푹 잘 잔 것 같아 아침이 아주 상쾌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발라다가 아침이고, 아이들도 오늘따라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 죽겠다. 날씨도 딱 좋고, 바람도 너무 좋다.

나 지금, 행복하다.

그날은 그랬다.

그 날, 뭘 아는지 모르는지 쏘리는 날보고 다른 때보다 더 개구지게 웃는다. 그런 날, 아이들이 더 나에게 마구 돌진해오더라. 그 날, 하늘은 미치게 아름답고, 또 그 날은, 이모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시고, 손잡아주시더라. 내가 보는 관점을, 내 시야를 넓히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늘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매순간 배운다.

이러니 내가 이사람들을, 이 곳을 안사랑하고 배겨? 미운정고운정, 추억들, 고작 다섯달인데 언제 이만큼 쌓였나 싶고, 다시 돌아가는 그 때에도,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도 못생기게 울고 싶진 않은데, 생각만해도 울컥하네. 참나 주책이다.

첫 달, '미안마..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나 지금 미안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눈물, 감동, 웃음 등 풍부하다못해 감정과잉인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남은 시간도 육감 발휘하여 잔뜩 느끼고, 미안마에, 이 사람들에게 흠뻑 취해있다 갈 거랍니다.

15기 양곤팀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곧 다시 만나요.

그럼 파파(안녕)

박은정

5개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반이 지났네.'
'어라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20일 남짓. 어느덧 '달'이라는 단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날이 되었고, 이곳에서의 마지막 에세이를 쓰는 날이 되었다. 크으. 마지막 에세이라고 하니 기분이 짝하네.

밖에 비도 내리고. 나는 에세이를 쓰는 이 순간이 정말 좋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여 한 달을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한 달을 되돌아봤는데.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나온 게 '웃음'이다. 6월엔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편안한 아바미소가 나왔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랬던 적이 있었다. 어떤 특별했던 추억을 떠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한 달을 생각해 본 것인데. 이 웃음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다고? 아니지.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한 달이 어땠어. 모르겠다. 의미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웃음이 나왔다는게 중요한거지.

5월 말이 될 때까지 워낙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어서 6월엔 좀 더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조금은 아쉽기도 하네. 3주 되면 한국에 있을 거란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 내가 미얀마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적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미얀마에서 쓰는 내 마지막 에세이라니.

마지막'이라는 말이 갖는 힘은 정말 큰 것 같다. 정말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 붙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당연했던 것이라든 마지막이 붙으면 아쉬워지고, 아주 소중했던 것에 마지막이 붙게 되면 마음이 아려오고. 살면서 수많은 마지막을 겪어왔으면서도 왜 항상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도 아직 진짜 마지막은 아니니깐! 미얀마에서 지낼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6월. 항상 그랬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분명 나는 한국에서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한국에서는 그냥 흘려보냈을 한 달이 왜 미얀마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라는 신기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일까. 단지 '해외니까'라고 하기엔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지 않다. 아마도 한동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 할 것 같다.

26살 지금의 나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성장한 내가 되었을 때,

저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싶다.

'이번 한 달은 어땠어?' 라고.

허성주

끝났다. 꽤나 길게 보였던 5개월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역시 시간은 간다. 아마 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기, 그 때부터 집을 조금씩 그랬던 것 같다. 여유로 울 줄로만 알았던 이곳에서의 생활. 그러나 실상은 달랐고 생각보다 뻣뻣하게 짜여진 스케줄 탓에 점점 지쳐갔다. 학창시절 일주일에 5일을 나가야 했던 학교도 버거워했던 나인데, 6일을 내리 일하라니. 어쩌다 마주하게 되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꽤나 자주 한국, 아니 한국이라기 보단 그럽고 포근한 집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들, 시간에 얽어 흘러가게 내버려뒀던 생각들과 잡념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되뇌고 또 되뇌곤 했다. 덕분에 제법 많은 생각들이 이젠 정리가 됐다. '고작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먼 곳까지 굳이 와야 했나?' 싶은 생각에 스스로가 우스울 때도 있지만, 왜 영어단어 'exist(존재하다)'가 라틴어의 '탈출하다, 벗어나다'란 의미를 품고 있단지 않은가. 일상생활 같이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낯설어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아무튼 한국에 가면 다시 내가 그토록 실증내고 불평했던 지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다. 해가 뜨면 뜨는 대로 내버려 둔 채 그저 자취방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몸이란 걸 이끌고 학교로 가는 그런 생활. 이따금씩 외로울 때면 술로 빈 속 채우면서 긴 밤 끝나길 기다리기도 할 테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그런 나른하고 심심한 일상이 그립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물론 그러다 한두달 즈음이 흐르고 나면 여기에서의 생활, 미안마를 그리고 라운아이를 다시 그리워하게 되겠지. 언젠가 한 번 짬은 철판 바닥이 새카맣게 타버릴 만큼 지지고 볶았던 박은정, 이난희, 허성주라는 이름을 가진 팀원들까지도 회상하게 될 날이 올 지도 모르고 말이다. 물론 언젠가

한.
번.
짬.
만.

송진우

제주민바레

